

스물 네 번째 서신 (2017. 01)

사 . 품 . 향

(사 명 을 품 은 향 해 자)

전재범, 양성금(하연, 하린) 선교사

배경사진 : 2016년의 마지막 일몰 (종족마을)



* 연 락 처

E-MAIL: you8291@hanmail.net

인터넷전화: 070-4623-3285

현지전화: +221 77-438- 2749

* 후 원 (GMP)

<외환은행 / 한국해외선교회 >

303-04-00001-692

<국민은행 / 전재범 (GMP) >

9-8291-8291-99

GMP Global Missions Pioneers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회
Global Missions Pioneers

안녕하세요 2017년 새해 첫 주에 사헬땅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문안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본국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 그 분의 분명한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기 사역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2017년 새해에도 여전히 이 척박한 서부아프리카 세네갈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겸손하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 땅과 부족한 저희 가정을 믿음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운데 거하시며 복음을 풍족히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Demeure en moi. (나의 안에 거하라 !)

“ Demeure en moi ”(나의 안에 거하라 !) 2017년 1월1일 와할잠 가정교회에서 선포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95%가 이슬람인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가난한 삶은 이들을 더 힘든 삶의 무게로 이들을 주님 곁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2017년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누게 하시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별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 어온 가난한 노인은 점심으로 준비한 빵을 먹지 않고 손자들을 위해 챙겨갑니다. 준비해온 현지 말씀 달력을 한 가정에 한 권씩 전달하며 서로를 향해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안아주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뿌려진 복음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땅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신년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가정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더 많은 자들이 복음의 생명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 작은 시작 : 가정교회 예배 >



< 병든 자를 향한 기도 >



< 주일 예배 후 먹을 점심 >



< 예배 전 동네 아이들과 함께 >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떠나있던 지난 6개월 반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1여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던 무스타파 형제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스타파는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며 교제를 이어오던 믿음의 자매 우미와 혼인 신고를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지만 예식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표징 일 뿐 이미 믿음의 가정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하나님께서 무스타파에게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가스(거주하는 방) 한 칸 벽에 분필로 그린 십자가 하나로 14 여 년의 시간 동안 핏박을 이겨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형제는 이제 이웃들에게 복



< 새해 아침에 먹는 꾸스꾸스 >

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 그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망과 꿈을 나누며 한동안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내며 웃고 울며 서로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를 정말 놀라게 합니다. 형제의 마음가운데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 무스타파 형제와 아내 우미 >

사.품.항 가족 이야기...

안식월을 한국에서 보내며 하연, 하린이는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피부색과 같은 말을 하고 자기들을 알아봐주고 맞이해 주는 가족과 교회, 동역자님들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을 만나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여나 아이들이 세네갈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면 어쩌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떠날 날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여 다시 집을 싸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세네갈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서면서 하는 첫 마디는 “우리 집이다~ 우리집 도착~!!!” 안식월 기간동안 게스트 하우스를 여러 번 옮기며 지내는 나그네적 삶 역시 아이들에게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네갈로 다시 돌아와 짐을 풀고 한 동안 쓰지 않은 집의 묵은 먼지를 청소하느라 모두 힘이 들었지만 우리 집에 다시 돌아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을 찾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것은 양선교사가 한국에서 원인 모를 피부 알러지(피부가 압력을 받으면 알러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가 생겨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였는데 돌아오는 날 피부과를 다시 들러 약을 처방 받아 오긴 했지만 30일이 한정적이라... 속히 알러지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기 사역을 위해 거점지인 캄푸망 지역에 집을 구하려 다니다가 저희가 거할 예비된 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계약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품.항을 위한 노래제목...

1. 2기 사역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현지 사역자를 잘 세워서 함께 사역하며 방문하게 되는 빌리지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도록.
2. 2기 사역을 위해 캄푸망(은계교)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새로운 환경과 지역에 잘 적응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3. 무스타파 형제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자로 잘 세워지며 새로운 믿음의 가정으로 잘 뿌리내려 이웃 무슬림들과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4. 양선교사의 피부 알러지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 안정적으로 다시 잘 정착하고 뿌리내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